

‘뉴딜지수’ 연계상품 봇물 예상... 신재생·게임株 들썩

거래소, 뉴딜지수 오늘 상장
자산운용사 출시 상품 다양
증시서 관련 수혜주 주목

한국판 뉴딜 선도기업으로 구성된 ‘뉴딜지수(Newdeal Index)’가 나온다.

상장지수펀드(ETF) 등 인덱스펀드와 같은 지수연계 투자상품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업종을 중심으로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KRX)는 ‘KRX BBIG K-뉴딜지수’를 7일 발표한다. K-뉴딜정책의 핵심 분야인 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BBIG) 업종으로 구성된 지수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뉴딜업종 내 상

Battery		Bio		Internet		Game	
시총 상위	비중	시총 상위	비중	시총 상위	비중	시총 상위	비중
LG화학	1/12	삼성바이오리자스	1/12	NAVER	1/12	엔씨소프트	1/12
삼성SDI	1/12	셀트리온	1/12	카카오	1/12	넷마블	1/12
SK이노베이션	1/12	SK바이오팜	1/12	더존비즈온	1/12	필어비스	1/12

자료/KRX, 카카오페이증권

장기업 종목을 추종하는 다양한 뉴딜지수를 개발·활용하고, 관련 인덱스펀드 등 뉴딜 지수 연계 투자상품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뉴딜지수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정책에 발맞춰 국내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관련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지수 운용을 시작하는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7일 ‘삼성 뉴딜 코리아 펀드’를 출시한다. 그린·디지털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예상되는 소수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으로, 민간에서 내놓는 첫번째 펀드다.

또 NH아문디자산운용은 4만명이 넘는 투자자를 모집해 소위 대박을 터트

린 ‘필승코리아 펀드’의 성과를 이어받아 ‘100년 기업 그린 코리아 펀드’를 지난 3일 출시했다. 환경 투자에 중점을 두고 ‘지속가능한 성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국내주식형 ESG(환경·사회적 가치·지배구조) 펀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K-뉴딜지수’를 추종하는 ETF 5개를 동시 상장할 계획이다.

정부의 뉴딜정책에 금융투자업계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면서 관련 수혜 기업들의 주가도 들썩이고 있다. 지난 4일 신재생·데이터 등 뉴딜펀드 수혜기업인 유니스(30%), 효성중공업(13.1%), 한화솔루션(6.1%) 등이 상승했고, 뉴딜지수 편입 수혜가 예상되는 필어비스, 더존비즈온 등도 10% 이상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다.

금융투자업계는 뉴딜지수 운용에 따

라 필어비스를 비롯한 게임섹터의 수급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바이오업종은 지수 편입에 따른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봤다. 뉴딜지수는 단순 시가총액 비중이 아닌 유동 시가총액 비중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각 섹터별로 동일한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상민 카카오페이증권 연구원은 “대부분 게임섹터의 경우 거래대금이 타 섹터에 비해 낮고, 비슷한 금액의 수요가 몰려도 거래대금 자체가 낮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바이오업종은 영향이 가장 덜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거래소는 그린뉴딜 관련 투자를 돕기 위해 ‘탄소효율 그린뉴딜지수’도 내달 말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카캠 ‘58조’ 투자자금, 뉴딜펀드 실탄될까

(카카오게임즈)

카카오게임즈에 몰렸던 청약자금
차기 투자 대안으로 뉴딜펀드 부상
투자자 ‘안정성’ 성향과 맞아 떨어져

정부가 발표한 뉴딜펀드가 카카오게임즈 청약자금의 차기 선택지로 주목되고 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증시 대기자금이 뉴딜펀드로 향할 수 있다는 기대다. 자산운용업계에선 시장이 조성된 만큼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반대로 변동성이 큰 증시에서 눈높이가 높아진 투자자가 연 1~2%대 수익률로 시중 유동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겠냐는 의견도 만만찮다. 오히려 뉴딜 관련주에 대한 투기만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 ‘58조’ 향방 관심... ‘보수 투자자’ 뉴딜펀드로?

정부는 지난 3일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내놨다. 국민에게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 등 다양한 투자 선택지를 제공하고 한국판 뉴딜 추진에 따른 성과를 공유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공교롭게도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 시기와 맞물렸다.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에 몰렸던 58조5543억원 중 높은 경쟁률로 주식을 배정받지 못한 58조4775억원은 지난 4일 투자자에게 돌아왔다.

일각에선 증시 주변에서 투자처를 찾는다면 뉴딜펀드가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모주 투자자들의 성향 때문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연령대가 높은 공모주 투자자 특성상 일반 주식 투자자보다 보수적 성향을 띠 수밖에 없다”며 “공모시장에서 돈이 계속 도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위험회피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카카오게임즈 대표주관사인 삼성증권에 몰린 청약투자자를 살펴보면 50대가 전체 청약금에서 가장 많은 비중(28%)을 차지했고, 1인당 청약금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3억7000만원을 쏟아부은 70대였다. 현금 수 천 만원을 증거금으로 내야 하는 공모주 특성상 20~30대가 몰리기 어려운 것.

뉴딜펀드가 투자자에게 어필하는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안정성’이다. 중위험·중수익의 공모주투자자 성향과 맞아떨어진다. 정부와 여당은 뉴딜펀드에 대해 “3% 인권의 수익률을 제공하며 사실상 원금보장을 추구한다”고 강조해 왔다.

뉴딜펀드의 모펀드는 사실상 손실의 35%를 방어하기 때문에 원금보장형에 가깝다는 평가다.

연 0~1%대인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보다 수익률이 높은 데다 정부에서 안정성을 담보할 만큼 공모주에 투입됐던 자금이 뉴딜펀드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

◆ 운용업계 ‘제2 필승코리아’ 기대

지난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출시된 ‘NH-아문디 필승코리아 펀드’처럼 연간 수익률 50% (4일 기준)에 달하는 민간 뉴딜펀드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최근 사모펀드들이 잇따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키며 침체에 빠진 자산운용업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뉴딜 정책형 펀드는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방식을 활용해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한다. 운용사 모집은 내년부터 시작된다.

이미 운용업계에선 민간뉴딜펀드 설정에 들어갔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7일 주식형 펀드인 ‘삼성 뉴딜 코리아 펀드’를 출시한다. NH-아문디자산운용은 이미 지난 3일 ESG(환경·사회·지

배구조) 주식형 펀드인 ‘100년기업그린코리아’를 시장에 내놓았다.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정부차원에서 시장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운용업계에 긍정적”이라며 “상황을 조금 지켜본 후 검토에 나설 것 같다”고 귀띔했다.

◆ ‘수익률 낮아서’... 뉴딜주 투기 우려

금융투자업계에선 은행금리를 소폭 웃도는 수준의 수익률로 시중 유동자금을 흡수할 수 있겠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증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폭락 후 반등하는 과정에서 60%를 웃도는 코스피 상승률을 본 투자자의 성에 차겠냐는 얘기다.

정부는 뉴딜펀드의 목표 수익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않았지만 “원금이 보장되고 국고채(1.5%)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할 수 있는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살펴봤을 때 1.5~3% 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예·적금에서 나온 자금으로 정부가 목표로 하는 펀드자금 조성은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뉴딜 관련주 투기라는 부작용만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거래소가 뉴딜 관련 주요 기업을 담아 만든 ‘KRX BBIG K-뉴딜지수’에 포함된 종목이 대상이다. 해당 지수는 BBIG(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 산업의 대표 종목 3개를 담아 모두 12개사로 구성됐다. 그전까지 ‘테마주’로 묶여 투자자들의 선취매 움직임이 활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송태화 기자 alvin@

‘1호 자펀드’ 내년 상반기 출시·운용

▶▶ 1번 ‘월세로 원금보장’서 계속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손실설계 방식을 두고 결국 세금으로 손실을 메우는 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안정적인 투자처를 선정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할 경우 결국 그 책임이 세금을 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스마트대한민국 펀드와 기업구조혁신펀드 등도 민간자금 유입을 위해 제정이 후순위 위험부담 역할을 하도록 했다”며 “심의위원회를 통해 뉴딜관련 투자 구조에 대한 사업성과 투자리스크, 정책부합성 등을 평가해 재정 및 정책자금의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 등 관련 절차를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때문에 ‘1호 자펀드’ 출시 및 운용도 내년 상반기 중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정책

에는 향후 5년간 총 160조원의 제정이 투입될 예정으로 내년 예산안에는 21조 3000억원이 포함돼 있다”며 “뉴딜사업 내역이 제시된 만큼 자산운용사 등이 관련 투자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사의 팔을 비틀어 뉴딜펀드에 동원케 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유동성이 늘어나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금융사도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금융사 입장에서 재정의 위험분담을 활용해 투자 기회도 얻고, 프로젝트 분석·투자 등의 경험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 및 뉴딜 금융지원 방안’에 따르면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향후 5년간 뉴딜기업 대상 특별보증을 통해 총 100조원의 저리대출을 지원한다.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그룹도 2025년까지 뉴딜 기업에 투자와 대출 방식으로 70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중환자 병상 서울 ‘4개’, 경기·인천 ‘제로’

▶▶ 1번 ‘코로나 확산세’서 계속

사망자와 중증환자도 늘어나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사망자는 1명 늘며 총 334명이 됐고, 위중·중증환자는 4명이 늘어 163명으로 집계됐다. 중증환자가 늘어나며 수도권 중환자 치료병상은 서울지역 4개, 경기와 인천 지역은 ‘제로’ 상태에 돌입했다. 수도권 확진자 입원은 가능한 병상도 10개(서울 9개, 경기 1개, 인천 0개)에 불과하다.

다행히도 지난 달 부터 이어진 전공의들의 무기한 집단 휴진은 중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오후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니면 파업이 끝난 거라고 생각하는 분



서울 강동구의 한 콜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16명)이 발생함에 따라 6일 오후 콜센터 건물 입구에 폐쇄명령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들이 많지만, 단계적 파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가다듬는 것”이라고 밝히며 집단 휴진 종료를 시사했다.

박 위원장은 구체적인 업무 복귀 시점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의료계는 전공의들이 7일 오전에 복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